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평화의 인사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푸르른 하늘이 주님의 눈동자인 것만 같아 마음이 설레는 계절입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 어지럽기 그지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서 본디 마음을 잃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에 눈을 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 평화의 씨앗을 심는 교회로 성장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51. 히브리서 11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이용한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5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함께
성경봉독	벧전1:1-5	하현철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빛의 알갱이 되어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59. 빛의 사자들이여	다함께
헌금봉헌<찬양 : 이용한 장로 · 오성희 권사>.....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윤정덕 장로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 곳곳에 흩어져 나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발 앞에 놓인 걸림돌은 치워주고, 고통받는 이들의 다정한 이웃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주님의 명을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관용과 사랑으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교우 만남의 날(친교)	신명기 강해(15)
이끄는 이 : 조항범 집사	기도 : 김인걸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최성애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안종일 집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방문성	이동천	김필순	박혜경	진정숙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용진	임창선	배삼순	김성자

마음 하나가 바뀌면

비가 오락가락하겠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지만 산에 들고 싶은 마음 바
이 없어서, 배낭을 챙겨두고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구기동 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듣고 싶었고, 여름내 버들치들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었
습니다. 귀룽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비
온 뒤끝이라 그런지 땅은 젖어 있었고 숲 냄새가 흐뭇하게 반겨주었습
니다. 며칠 내린 비로 계단 폭포에도 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기를 머금
은 숲 그늘이 서늘합니다.

“바닥이 얇은 개울물은 졸졸졸 시끄럽지만 깊고 넓은 강물은 소리 없
이 흐릅니다. 모자란 것은 늘 번잡한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합니다.” 슷타니파타의 한 구절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계곡
을 흐르는 물소리는 그대로 음악입니다. 그 소리가 가슴의 답답함을 씻
어줍니다. 물소리에 취해 가만히 서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혼잣소리
인양 말합니다. “쭈레쭈레 잘도 흐르네.” 쭈레쭈레 흐른다는 말이 재미
있어 같이 웃었습니다.

능선이 있어 계곡이 깊고, 계곡이 있어 능선이 우뚝합니다. 서있는 자
리 서로 다르지만, 둘은 서로를 드러내주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그대
가 있어 내가 있다’는 말의 인도인들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무릇 생
명이란 누군가를 기우뚱하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산색이 벌써 가을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백로
절기를 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변전합니다.
순환하는 시간이야말로 일직선의 시간을 살다가 지친 이들이 기댈 언덕
입니다. 뭔가 변화하지만 여전히 어떤 리듬 속에 있다는 사실이 안겨주
는 안온함이 참 좋습니다. 그 맹렬하던 초록이 누런빛에게 온전히 자리
를 내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니다.

귀룽나무 그늘은 간 데 없고, 벌써 앙상하게 잎 진 귀룽나무가 너무
늦게 찾아온 나그네를 멀뚱히 바라봅니다. 까마귀 몇 마리가 마치 익숙
한 손님을 맞듯 짹짹거리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흉내
내자 기분 나쁘다는 듯이 더 탁한 소리로 퉁퉁거립니다. 까마귀를 보고
사람들은 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햇빛에 어룡지는 깃털은 분명 금빛
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는 겁다’고 하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생명의 실상

을 보지 못합니다. 물빛은 어떻습니까? 바위에 부딪쳐 떨어지는 물빛은 분명 하얗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꽤 되는 물웅덩이에 고인 물은 푸르스름합니다. 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 사람을 속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해를 붉은 색으로만 칠하지 않습니다. 노랑게도 칠하고, 회게도 칠합니다. 검은 색으로 칠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염려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관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립니다. 아이들은 인상과 화가를 닮았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털빛 고운 새소리를 듣다가 문득 도종환의 시 <똑같은 새를 보며>가 생각났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지닌 새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오는 부리로 필사적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우아한 몸짓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비린내나는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진흙탕에 발을 딛고 깃털에 온통 흙을 묻힌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지요, 사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때로는 경외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시인은 그날 마음이 활짝 열렸나봅니다. 시인은 똑같은 그 새들이 오늘 새롭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거친 털에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벌레를 잡아먹어가면서도
저 새는 저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온몸에 흙탕칠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하던
새들도 저리 환하게 날개를 펼쳐들고
하늘 한가운데 다시 날아가는구나
제 하늘 제 소리를
저렇게 지켜가는구나

마음 하나가 바뀌면 똑같은 현실도 전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생의 경험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장 배고프고 험벗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에 대한 분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북한산을 걸으며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석)

■ 마/음/으/로/읽/는/글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
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은 무언가
예수에 더 몇 해를 보아온 같은 풍경과 말들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
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들 때까지
복사꽃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
소매 잡은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

이르지 못한들 어찌랴 이르고자 한 곳에
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
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
—신경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종훈 안경숙 박창운 허정윤 김준호 곽혜자 김정길 최숙화 박영숙
최종원 배상순 이소순 박영희 고사일 최영선 김성한 조영순 김남홍
염혜영

월정헌금:

이지훈 유증희 이재문 백묘현 김흥기 박석희 조항미 최윤희 최주환
문복순 황원순 황자순 전영규 김경수 이정은 임원민 임수연 이증자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훈 한지혜 이봉옥 안종일 정현주 이봉배 이증자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철수 송남우 황경화 이성범 이민범 박영희 방 준

구도헌금: 김재흥 안디옥숙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김 애 경	하 재 두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정 경 례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이 건 화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안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필 순	김 순 복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권 미 정	오 성 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최 종 원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오 현 정	안 흥 숙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안 경 숙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우 만남의 날** : 만남의 신비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귄이 깊어가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일에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오후집회** : 만남의 날 행사 제3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입니다.
3. **아름다운 원로모임** : 9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4. **평화이야기마당** : 감리교 평화교육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모임이 23일(목) 오후 3시 감리교빌딩 16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함양제일 교회의 양재성 목사(지리산 평화연대 사무총장)입니다.
5. **심방** : 가을철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1(화) - 가버나움, 나사렛 22(수) - 베다니
6. **신앙실천** :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위해 짧은 기도(화살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십시오.

* 헌화 : 장혜숙 권사 (전영자 권사님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